

성냥팔이 소녀

김선희 역¹

지독히도 추운 날이었다. 눈이 내리고 어둠이 찾아왔다. 그해의 마지막 저녁이었다. 한 가엾은 소녀가 모자도 쓰지 않고 맨발로 춥고 우울하게 거리를 걷고 있다. 물론 집을 나설 때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. 신발은 엄마의 것이었기에 소녀에게 너무 컸다. 어린 소녀는 길을 뛰어 건너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마차 두 대가 덜컥거리며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신발을 다시 찾을 수 없었다. 한 소년이 나중에 아이를 놓으면 요람으로 쓰겠다면서 나머지 한 짝을 가지고 달아나버렸다. 그래서 어린 소녀는 맨발로 걷고 있었다. 두 발은 퐁퐁 얼어 울긋불긋했다. 낡은 앞치마에 들고 가는 성냥갑 몇 개가 있었다. 소녀는 성냥 하나를 손으로 들어 내밀었다. 하지만 하루 종일 소녀한테 성냥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 단 한 사람도 1센트를 주지 않았다.

추위와 배고픔으로 벌벌 떨면서 소녀는 기어갔다. 비참한 그림이다, 가엾은 소녀!

눈꽃이 소녀의 긴 머리카락 위로 떨어져 내려 목을 구불구불 휘감았다.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거위를 굽는 근사한 냄새도 흘러나왔다.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. 그렇다, 소녀는 그 생각이 간절했다!

집 두 채 사이 모퉁이에 다른 집보다 길 쪽으로 더 튀어나온 곳이 있었는데 소녀는 그곳에 앉아서 발을 끌어당겨 몸을 웅크렸다. 점점 더 몸이 추웠다. 하지만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. 성냥을 팔지 못했기에, 1센트도 벌지 못했기에 아버지는 분명 이 소녀를 흠씬 두들겨 팼 것이다. 게다가 집은 너무 추웠다. 지붕 말고는 불어대는 바람을 가릴 게 없었다. 제일 크게 갈라진 틈을 지푸라기와 천 조각으로 막았는데도 그랬다.

손은 동상을 입은 듯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다. 작은 성냥 하나가 온기를 어느 정도 더해 줄지도 몰랐다! 소녀가 성냥갑에서 성냥 하나를 꺼내 벽에 그어서 손을 따뜻하게 할 수만 있다면..... 소녀는 하나를 꺼냈다. 치지직! 성냥은 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! 온기를 주며 작은 초처럼 환한 불꽃을 일으켰다. 소녀가 그 불꽃 위로 손을 올리자, 이상한 빛이 일어났다! 정말이지 반짝반짝 빛나는 황동 손잡이와 뚜껑이 달린 거대한 쇠 난로 앞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. 불이 얼마나 멋지게 타오르는지! 얼마나 편안한지! 소녀가 발도 녹이려 발을 내밀었다. 문득 작은 불꽃이 꺼지고 난로는 사라졌다. 손안에는 다 타버린 성냥만 남아 있었다.

소녀는 성냥을 하나 더 벽에 그었다. 성냥은 밝게 타올랐다. 불빛이 벽을 비추자, 하늘하늘한 막처럼 투명해져서 방 안을 흰히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. 탁자에 눈처럼 하얀 식탁보가 덮여있고, 그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저녁 식사가 차려있다. 사과와 자두로 속을 채워 구운 거위에서 먹음직스럽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. 더더군다나 그 거위가 접시에서 펄쩍 뛰어내려 칼과 포크를 가슴에 품고 이 어린 소녀에게 곧장 걸어왔다. 문득 성냥이 꺼졌다. 두껍고 차가운 벽만 보일뿐이었다. 성냥 하나를 더 밝혔다. 문득 소녀가 몹시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트리 아래 앉아 있다. 작년 크리스마스에 부자 상인의 집 유리문을 통해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. 수천 개의 초가 초록 나뭇가지 위에서 활활 타오르고 판화 가게에 있는 것과 같은 알록달록한 그림이 소녀를 내려다보았다. 어린 소녀는 두 손을 내밀었다. 문득 성냥이 꺼졌다. 크리스마스 불빛은 더 높이 올라갔다. 불빛은 이제 하늘에 환한 별처럼 보였다. 별 하나가 길게 줄을 이루며 떨어져 내렸다. 소녀는 생각했다.

¹ 역자 약력은 원고 말미에 기재하였습니다.

‘지금 누군가가 저세상으로 가고 있구나.’

지금은 저세상으로 간, 누구보다 소녀를 사랑했던 할머니는 별이 떨어져 내리면 영혼 하나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.

성냥을 하나 더 벽에 그었다. 다시 환하게 불꽃이 일었다. 그 불꽃 속에 할머니가 친절하고도 사랑스럽게, 맑고 환하게 빛을 내며 서 있었다.

소녀가 외쳤다.

“할머니! 아, 저를 데려가 주세요! 성냥이 꺼지면 할머니가 사라지리란 걸 알아요. 할머니는 따뜻한 난로처럼 사라질 거예요. 저 맛있는 거위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트리처럼요!”

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기에 재빨리 성냥 꾸러미를 모두 밝혔다. 성냥이 무척이나 환하게 빛나서 낮보다 더 밝아졌다. 할머니가 그렇게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적이 없었다. 할머니가 소녀를 품에 안았다. 두 사람은 땅 위로 밝고도 경쾌하게 날아올랐다. 아주, 아주 높이. 저 위 추위도 배고픔도, 두려움도 없는 곳으로..... 두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.

하지만 모퉁이에서, 미소 짓는 입술에 붉은 뺨의 어린 소녀가 벽에 기대어 앉아 묵은 해의 마지막 밤에 얼어 죽었다. 새해의 태양이 측은한 한 사람의 모습 위로 떠올랐다. 소녀는 그곳에 얼어 뻘뻘하게 앉아있었다, 거의 다 타버린 성냥 꾸러미를 움켜쥔 채로.....

웁킨이 약력 : 김선희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, 대학원에서 ‘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’을 공부했습니다. 소설 『십자수』로 **근로자문화예술제**에서 대상을 받았으며, **원한국 제청소년도서관(IYL)에서** 펠로십(Fellowship)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문학을 공부했습니다.

현재 <김선희’s 언택트 **번역교실**>을 진행하며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펴낸 책으로는 『토머스 모어가 상상한 꿈의 나라, 유토피아』 등이 있으며, 웁킨 책으로는 「윌 피 키드」 「드래곤 길들이기」 「위저드 **오브원스**」 「멀린」 시리즈, 『생리를 시작한 너에게』 『팍스』 『두리틀 박사의 바다 여행』 『공부의 배신』 『난생처음 북클럽』 『베서링의 괴물』 등 20여 권이 있습니다.

인스타 : https://www.instagram.com/h_translator_sunhee/